

기관 돋보기 | 공동생활가정 햇빛촌

지역사회의 안정적 거주 · 소중한 나의 이웃

장애인 당사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시설이 있다.

중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송덕원 산하 공동생활가정 햇빛촌은 성인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개별적 서비스와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통해 독립적 삶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전 영역 'A등급'을 받으며 충북도 내 최우수시설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공동생활가정 햇빛촌(원장 이용호)은 시설장(겸임), 사회복지교사 1명, 입소자 4명으로 언제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이용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사회협력을 통한 안전한 지원체계 마련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용인 · 보호자 · 종사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수행,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자립을 위해 서로 간 상호작용에 핵심가치를 두고 햇빛촌을 이끌어 가고 있다.

햇빛촌은 2001년 시설 인가를 받아 20년 이상 이용인들의 지역사회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4명의 남성 장애인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이용기간은 입주 후 3년 이내, 자립생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용인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장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어 자립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여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창기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작은 거주시설 역할에 한정되어 운영을 하였지만, 공동생활가정 사업이 안정화되고 이용인들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2018년 이후 매년 1~2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안정적 자립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 자체가 자립생활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햇빛촌의 특화사업은 사회문화, 권리와 참여 등 개인별 · 유형별 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자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장애로 인한 약점보다 개개인이 갖



햇빛촌 원장(오른쪽 끝), 사회복지교사(왼쪽 끝)와 이용인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보건복지부 평가 전 영역 'A등급'... 최우수시설 자리매김  
 개별적서비스와 사회 · 직업적 · 자립 통해 독립적 삶 유지

고있는 강점으로 자립에 필요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사업은 지역사회에 자립한 이용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랑방 가족 모임'이 있다.

지역사회에 자립한 이용인과 자립을 준비중인 이용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로, 자립생활에 대한 공급증과 고충을 이야기 나누며 정보 공유 및 서로의 지인을 소개해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또, 교류 활동을 통해 동기부여 및 자립준비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서적 ·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켜 주도적인 자립생활 · 자립모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 1인으로 종사자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고 남의 눈에 띄기 위해 하는 업무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작은 공동체이다.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이용인의 삶을 모니터링하여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고, 행복한 삶 경험 및 본인 스스로 자립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햇빛촌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및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며, 이미 지역사회에 자립을 목적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 시설화는 해결책으로 시도되어 온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화두가 되며, 최근 장애인 탈 시설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주거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보장급여 결정이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환일률적인 경우가 많아 활동지원등급을 받지 못하여 정작 자립을 해서도 소외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회보장급여 결정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립을 하여 혼자 산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며, 혼자만 감당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원장은 "장애인을 장애가 아닌 다 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한명의 온전한 인격체로 봐 주시길 당부 드리며 평범한 삶, 보통의 삶을 살아가려는 장애인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내 이웃으로써 관심을 갖고 반갑게 인사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햇빛촌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립을 원하는 이용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립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불편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햇빛촌 이용인들이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도는 결식우리아동 지원을 위한 '충북도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 결식우리아동 '행복두끼 프로젝트' 출발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권리 증진에 기여

충북도는 행복얼라이언스(대표 구영모), 행복도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최강중)과 함께 결식우리아동 지원을 위한 '충북도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 4월부터 1년간 1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내 결식우리아동 600명에게 주 5일분 양질의 밑반찬이 지원될 예정이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결식아동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체계로, 협약에 따라 충북도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기업의 지원이 종료된 후 지자체 급식 지원 대상 편입 등 결식문제 해결에 나선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급식 공급을 위한 사업비 및 기부물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

과 사업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행복도시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조, 배식 등 급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식단관리, 모니터링, 위생관리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민간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얼라이언스 운영 사무국인 행복나래(주)는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며,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복안전망으로 114개 기업, 73개 지자체, 30만명의 일반 시민이 협력하고 있다.

충북도,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90% 지원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보호자 사회 · 경제적 부담 완화

충북도는 도내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공동간병비를 지원하는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규모축소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보호자의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간병비를 90%까지 지원해 주는 공공의료사업이다.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해 청주의료원에서 2실 12병상, 충주의료원에서 6실 28병상을 공동간병실로 운영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내 거주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간병실 서비스 지원단가는 1인 1일 기준 4만5000원으로, 이 중 90%인 4만500원을 충북도와 의료원에서 각각 3만1500원(70%), 9000원(20%)을 지원하고, 환자는 10%인 4500원만 부담하면 연간 최대 60일까지 공동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곽홍근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입원환자 중 높은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라며, "보호자의 사회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에게는 24시간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출력 · 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 증평군, '공공심야 약국' 운영

### 심야시간 의료공백 해소... 2월부터 밤 10시~새벽 1시

증평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심야 약국에 '성가약국'이 지정되어 2월부터 심야시간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지정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시간대인 심야시간대와 휴일에도 약사의 적절한 복약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 구매, 복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특히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 및 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의약품 판매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약지도가 이뤄진다.

윤서영 보건소장은 "공공심야 약국 운영으로 늦은 밤에도 필요한 약품을 전문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어 심야시간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증평지구대에 약



공공심야 약국으로 지정된 증평읍 증영로 성가약국(증평군 첫번째 지정약국).

사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심야 운영시간 동안 해당 약국

인근 지역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 옥천군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예방 전략추진

### 'GO! STOP!' 전략 수립... 아동보호 강화 4개 분야

옥천군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GO! STOP!'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아동학대 인식개선,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피해 아동보호 강화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군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예방 미접촉, 장기결석 등의 데이터로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아동행복지원사업과 아동학대 발생 우려 고위험 가구 합동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활동으

로 아동권리 행동강령 배포,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 예방 행사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아동 맞춤형 관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요원 1명을 배치해 시설입소·가정위탁아동의 모니터링 등 아동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관리를 시행하며, 아동보호, 학대 판단 등을 위해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신속한 학대 판단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보호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1개소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학대로 분리 조치 되는 아동의 보호, 치료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쉼터(남·여 각 1개소)를 운영하는 등 피해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군은 학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남부 3군 유일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1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사례관리, 행위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대 사건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 2명의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이 연중 24시간 근무를 수행하고 조사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며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약체계를 운영하는 등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보은군,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여성장애인의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보은군은 여성장애인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여성장애인 육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육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자녀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돌봄, 학습 및 놀이지도 등 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군비로 지원되며 월 최대 48시간(1일 4시간, 주 2~3회)이 제공된다.

군은 육아도우미와 이용희망자를 모집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으로 여성장애인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돌

봄이 가능하게 돼 여성장애인의 육아 부담이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은 사업수행기관인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가정방문, 선정 회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 발굴·지원

보은군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현재 영유아와 아동에게 집중된 국가의 경제적 수당지원(영아수당, 아

동수당) 외에 보편적 복지로서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8세에서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만 8세부터 만 12세는 연 10만원, 만 13세부터 만 18세는 연 30만원을 지원하며 전자가 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만 8세에서 만 12세는 서점, 문구점으로 독서 지원 분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만 13세에서 만 18세는 영화관, 각종 체육시설문화 체육 분야,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이·미용실, 안경점, 편의점 등

생활 지원 분야 등 모두 4개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향후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군내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동군, 치매환자 쉼터 '늘봄' 프로그램 운영

### 전문적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영동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2월부터 치매 약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경증 치매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화, 목요일 주 2회 늘봄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은 낮 시간 동안 경증 치매환자에게 치매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지 자극훈련, 신체활동, 원예활동, 심리요법, 실버 체조, 수공예 활동 등 전문적 인지재활프로그램이다.

짜임새있는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치매환자가 정서적으로 안정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돼 삶의 질 향상 및 가족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 마련된 쉼터 카페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며 새로운 활동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들이 쉼터를 통해 전문적

인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아 증상 악화를 막고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참여를 원하는 관내 경증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치매안심센터(043-740-5944)로 문의하면 된다.

# 옥천군, 치매 조기 검진 적극 독려

### 60세 이상 인지선별검사 1년에 1회 무료

옥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치매 조기 검진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로 중증화 진행을 방지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옥천군민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방문해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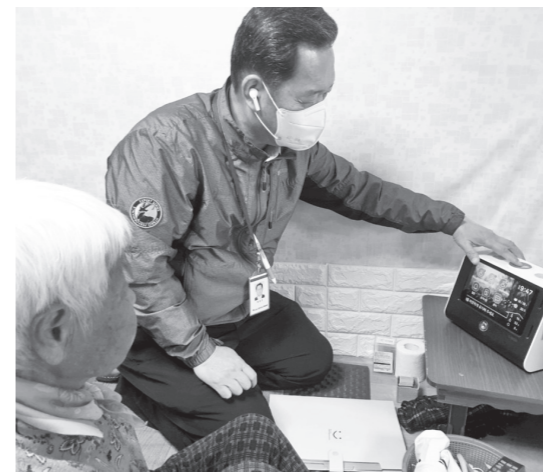
인지선별검사는 1년에 1회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나올 경우 진단검사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에 한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서 기억력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를 빠르게 발견해 관리하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괴산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대상자 신규 발굴·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괴산군은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괴산군은 홀로 사는 노인의 화재 사고,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활동량을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현재 지역 내 655가구에 설치돼 있다.

군은 올해 신규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독거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에 속하는 노인 등으로서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안

전 확인이 필요한 자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먼 거리에 있어 자주 와보지 못하는 부양의무자들이나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호응도가 높다.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모두 28건의 응급 호출로 119구급대 및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한 바 있다.

칠성면의 한 어르신은 저혈당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왔으나 응급호출기를 눌러 다행히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낙상으로 인해 갑작스런 구토증상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 응급호출기를 통해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한 사례도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괴산군노인복지관(043-834-3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 기	배 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동행매니저' 지원

### 충북사회서비스개발원과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협약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는 충북사회서비스개발원(대표 이인수)과 '1인가구 등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재가 중증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의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심하게 손상된 정신기능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치료 중단으로 인한 대상자의 정신병적 증상 악화와 후시

모를 이웃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도달케어서비스 바우처 수행기관인 충북사회서비스개발원과 손잡고 보호자 대신 병원동행매니저를 지원한다.

차량 지원은 물론, 병·의원 접수, 증상관리일지 등을 기록해 병·의원에 제공하고 약물처방 등을 돕고 꾸준한 약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이용자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1:1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북사회서비스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있어 질환 재발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

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24시간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 3일 증평군은 보건복지타운 내 별관에서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관식 개최

### 장애인 인권 존중·안전망 구축 '총력'

증평군은 지난 3일 보건복지타운 내 장애인복지관 별관에서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정찬연)는 모두 15억원(특별교부세 6억, 군비 9억)사업비로 장애인복지관 별관을 증축해 지난 2021년 10월 착공해 2022년 10월에 준공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사무실, 심리안정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췄으며, 이용 정원은 10명으로 평일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로, 지역사회적응훈련, 건강생활 지원, 여가문화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

인 기능을 강화하고 자립을 도모한다.

이용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043-835-4804~6)로 문의하면 된다.

정찬연 센터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자립을 증진하며 지역사회 내에 복지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굿네이버스 충북지부, '햇살한줄 선물상자' 전달



굿네이버스 충북지부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여아지원을 위한 '햇살한줄 선물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 위기가정 여아 100명 지원

굿네이버스 충북지부(지부장 이영찬)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과 여아지원을 위한 '햇살한줄 선물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햇살한줄 선물상자'는 굿네이버스 충북지부에서 진행하는 위기가정여아 지원 사업으로 선물상자 내부에는 6개월 치 생리대 와 찜질팩, 생리대 파우치, 여성청결제 등 다양한 여성위생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생리대 교체가 필요하지만, 저소득 가정 여아의 경우 치솟는 생리대 가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을 지원하

고 있으나 직접 신청해 수령하는 형식인 까닭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마다 사용량이 달라 부족한 경우도 있다.

굿네이버스 충북지부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가정의 아동들을 발굴하여 여성용품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충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통해 선정된 여아 100명에게 '햇살한줄 선물상자'가 집으로 배달됐다.

박재환 교육장은 "여아들의 성장과정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충북지부는 나눔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개발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충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소년장애인 권리증진 협력

###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협약... 다양한 교육·문화활동 제공



충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애자, 이하 충북발달센터)와 청주시청소년수련관(관장 강경규)은 지난 8일 '청소년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발달장애

인의 교육활성화 기여 및 권리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대한 상호협력 추진·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사업 발굴,

청소년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보교류 등 상호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기타 관심에 대한 상호협력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교육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수련관은 1998년 개관 이래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동아리활동, 자치기구활동, 직업체험,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청주가경노인복지관, 교통안전교육 실시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

도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164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교통안전 및 노인일자리 적응하기 안전교

육을 진행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건강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 일상을 지원하고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로는 9988행복지킴이, 그린누리사업, 환경지킴이사업, 초록꽃밭사업 등 공익형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행자가 주

의해야 할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가 보행 중일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보행 또는 운전 시 장애물과 주변환경 등으로 생기는 사각지대에서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영상과 강의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3원칙(멈춘다, 살핀다, 건넌다)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어르신들도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를 큰소리로 외치며 안전수칙 준수하고 생활화하기로 약속했다.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사랑의 PC 나눔'

### 스마트 기기 활용 환경 조성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지난 8일 '사랑의 PC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PC나눔 전달식 진행은 PC가 필요한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신청받아 이날 신청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 내용은 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PC를 전달식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8일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PC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마트 기기 활용 가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PC는 복지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이용한 사용 가능한 컴퓨터로 모두 점검된 상태로 나눔이 진행되었으며, 치료가동 가정 및 발달장애인 등 총 34명의 신청자에게 본체와 모니터 세트를 전달했다.

장애인복지에 공금한 사랑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

#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

[www.043w.or.kr](http://www.043w.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복지광장



최 승 민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요즘 오픈 AI(인공지능) '챗GPT'가 전세계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의사·로스쿨 시험도 통과하고, 신년사 및 칼럼은 물론 판사의 판결문까지 작성을 해서 인용하였다"는 기사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각종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오픈 AI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초거대 AI는 공상과학 영

화의 미래의 이야기기 아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술·서비스로 다가왔다. 필자도 챗GPT 체험을 해보았다. "AI 시대의 사회복지 주제로 2000단어 분량의 글을 써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그럴싸한 내용으로 글이 완성됐다. 영어기반의 AI지만 한글번역도 예전의 번역기술과는 다르게 매끄럽게 되었다. 만족할 정도의 글은 아니었지만 막연했던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적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AI는 현재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2021년 광주 서구청에서 지역사회 최초로 관내 돌봄 대상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AI복지사 가상상담원 안부전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AI 기술을 복지전달 체계에 접목 후 복지공백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AI기술로 메꾸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국내 최대 포털회사에서 초대규모 AI 기술을 접목한 케어콜, 안부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내 독거 어르신·중장년 1인가

AI 시대의 사회복지

구의 돌봄 대상자와 주2회 식사, 수면, 건강 등의 주제로 정형화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인 케어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화 모니터링 중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기관,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로, 업무 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활용 계획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AI 기술은 최근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대하고 있다.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한들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당수가 사실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대상자들이다.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은 대부분 정보를 습득하거나 인지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도 신청주의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제적 발굴주의 복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 '국민비서알림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마이 AI를 통해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몰라서 받지 못했던 복지제도를 찾아 알려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를 구비서류 없이 전송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100종과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 64종도 민간 앱 등을 통해 확대 제공한다고 한다. 이제는 기술발전에 힘입어 선제적 발굴주의 복지가 실제로 가능한 세상이지만 기술은 앞서가는데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정부에서 꾸준히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제 대상자들의 복지경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복지란 일반적인 서비스와 다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임의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법과 기준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정부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로서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



김 연 준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좋은 기회로 칼럼을 쓰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한다. 나는 대학생 때 이론보다 현장경험을 중요시 했고, 수업을 듣는 것보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했으며 자연스럽게 내 꿈이었던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졸업 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첫 취업을 했고, 노인 분야를 희망하고 있던 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성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수십 번 정독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업무에 적응해 나갔다고 생각한다.

어느새 나는 복지관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점차 적응하여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매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어르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는 청소년, 학교 뒤 방과 후 교실로 뛰어오던 아이들이 복지관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복지관의 중심은 사회복지사라는 생각을 뒤집어버린 계기였고,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에 스스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컸다. 이 때를 계기로 매일매일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2년차가 되던 해 나는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익숙해져 무리 없이 내 역할을 수행해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틀 안에서 반복되는 사업 일정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고 수많은 고민 끝에 나는 퇴사를 결정했다. 나의 사회복지사로서 첫 근무는 마무리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질 기회가 생겼다. 몇 개월 간 계속 고민하고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결론은 사회복지였고, 당시에는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지만 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가장 즐겁다는 것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며

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두번째 기관이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전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나의 자신감 하나만 믿고 걱정없이 두번째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입사 후 현실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체계적인 업무시스템과 분위기, 지역 특성은 내 자신감을 깰만큼 내가 무력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이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서비스제공팀에서 근무를 하며 일을 배웠고, 다음 해 사례관리 업무를 맡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내 삶은 크게 달라졌다. 사례관리를 하며 가장 먼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었고, 사람마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노력도 많이 했다. 그렇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나 스스로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례관리 업무는 반복되는 일상을 싫어하는 내게 매일 새로움을 느끼게 해줬고, 변화에 맞춰가도록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안에서 욕

구와 문제를 직접 눈과 피부로 느끼고, 이용자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그만큼 힘들고 속상한 경우도 수없이 많다. 욕설을 듣고 위협을 받는 상황, 단지 내 구급차와 경찰차가 자주 오가는 모습을 보면 좋지만은 않다. 구급차가 오고 상황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 시신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엔 두렵기도 하고 심장이 벌렁 거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나는 어느새 죽음에 익숙해져 있었다. 언제쯤인지 내가 이 상황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자괴감이 들었고 일을 하며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무서울 때도 있다. 나는 이곳이 사회복지 현장의 최전방이고,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삶과 죽음, 그 끝 어디까지 서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의 웃는 모습과 변화를 보며 난 오늘도 이겨낸다.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로 살아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처우가 좋게 개선되고,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복지포럼

사회적 고립속, 다시 우리의 연결



장 영 은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가 더 낮고 외로움의 중심에는 여전히 연결되고자 하는 타고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서로 돕고 경험을 나누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인적,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2019년 보다 6.4% 증가하였다. 사회적 고립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41.6%로 19-29세의(26.7%)에 비해 14.9% 높다. 높은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 때 의미의 존재로 더욱 빛이 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는 기차나 비행기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자라온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의 운명을 추구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관계와 공동체보다 자신의 목표를 우선시하게 됐다. 이렇듯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의 단절과 고립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최근 복지현장은 '고립' 그것도 '사회적 고립'의 이슈로 현상이 뜨겁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낯설었던 단어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와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가구들이 늘어가며 복지현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휴머니즘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는 익숙함으로 우리 곁에 파고든 것이다. 미국의 비백 머시 박사는 외로움이 알코올·약물 중독과 폭력, 우울증, 불안감 등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이자 원인 제공자라고 이야기한다. 간단히 말해 인간은 함께 있을 때

##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p><b>🏠 법률홍닥터</b></p> <p>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p>	<p><b>📋 지원내용</b></p> <p>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p>	<p><b>📝 신청방법</b></p> <p>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p>						
<p><b>👉 지원 대상</b></p> <p>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p>	<p><b>🔍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b></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채권·채무</td> <td style="border: none;">손해배상</td> </tr> <tr> <td style="border: none;">근로관계·임금</td> <td style="border: none;">개인회생·파산</td> </tr> <tr> <td style="border: none;">이혼·친권·양육권</td> <td style="border: none;">생활법률 전반</td> </tr> </table>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홍닥터

